

믿음을 지키십시오

2022년 7월 31일 설교

디모데후서 4:1-7

크리스 식스 목사

오늘 우리는 New City Catechism의 31번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3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에게 친숙할 것입니다. 나는 그 질문을 읽을 것이고, 우리는 함께 우리 자신의 언어로 사도신경을 읽을 것입니다. Worship Guide에서 당신의 언어로 된 신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 안내서에서 이 기호를 찾으십시오.

31문: 참된 믿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내려갔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거기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거룩한 가톨릭 교회, 성도의 교통, 죄 사함,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New City Catechism은 올해 One Voice Fellowship에서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52개의 간단한 질문과 대답을 제공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더 짧고 훨씬 오래된 요약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죽은 지 1~2세기 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것과 사도들이 초기 신자들에게 가르친 것을 분명히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1분 전에 읽었던 것과 똑같은 말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창조하거나 발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전에 살았던 신자들로 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지난 주 미시간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40명이 모였습니다. 이모, 삼촌, 사촌, 조부모가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아도 그들 각자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수백만 형제자매가 있는 지구촌의 일원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견해도 다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목사가 에베소 교회에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젊은 교회가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어로 된 구절을 읽고 기도할 것입니다. 태블릿을 사용하거나 화면의 4개 언어 중 하나를 사용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언어로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1-7

- 1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 2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계절에 따라 준비하고 계절에 따라 준비하십시오. 온전한 인내와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 4 진리의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 5 너희는 항상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 6 이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이르렀음이라
-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이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열어 주소서. 아멘.

다시 1절을 보자.

“1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비난으로 이 문장을 시작합니다. 돌격은 장교가 군인에게 내리는 명령이나 명령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자신의 권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법에서는 법정에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께서 디모데의 사역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십니다. 바울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가 지상에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과 기회로 평가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의 삶과 당신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는 일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미국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가 당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압제적인 나라에서 온 당신에게 큰 축복이자 안도라는 것을 압니다. 억압은 악이고 자유는 선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자유는 좋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많은 마음이 진정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사실인지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좋은 가르침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이 2절에서 디모데에게 준 지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온전한 인내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메신저가 되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때에 복음을 나눌 기회가 올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월 5일 우리 교회 수양회에는 전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목사의 또 다른 세 가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책망은 일반적인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잡다, 지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길, 좋은 풀로 인도합니다. 목사는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책망은 두 번째 책임입니다. 누군가가 진리를 듣지 않는다면 책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을 헤매고 있는 누군가의 관심을 끌 때 사용하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권면은 세 번째 과제입니다.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권면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이 선하고 옳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도록 격려합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며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른 때에는 사람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들을 바로잡고 인도할 부드러운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당신은 이미 누군가를 수정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인내와 사랑으로 꾸짖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휴가 후 가방을 풀라고 하면 내 여행 가방이 침실 바닥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녀는 내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하라고 권고합니다.

일주일도 지나도 가방이 바닥에 있다면? 버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나를 책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우리 방이 엉망이면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알잖아요. 당신은 가방을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내 요구에 둔감해?" 아마도 재미있는 예입니다.

여기 4장에서 바울은 여행 가방보다 더 심각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정되어야 하며 때로는 책망을 받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진리의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청중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진리를 가르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의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어로 "건전한 가르침"은 "진정한 가르침" 또는 "좋은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참된 가르침을 건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대 자녀에게 "네 방이 엉망이야"라고 말하면 그는 "아니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방이 엉망이라

는 데 동의하면 이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십니까? 십대가 진실을 부정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방 청소 의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250년 동안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곳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속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예 주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내 십대가 자기 방이 엉망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아프리카,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노예 소유자들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열정에 맞는" 목사나 교사를 찾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신실한 교사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려운 귀"는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합니다. "노예제는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시간의 예를 하나 더 공유할 수 있습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위해 창조하신 성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몸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여 아이를 만드는지 볼 때 그것은 또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모든 인류가 역사를 통해 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고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경험하는 투쟁에 대해 동정과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깊고 어려운 일과 씨름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별의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화와 우리 자신의 열정 대신 진리의 길을 따를 때 우리 모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결코 잘못된 길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성 관계는 행복한 인간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것과 모순되는 진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때 행동을 바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노예 제도에 대한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결혼과 성별에 관한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거짓 교사들은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유튜브는 나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자들은 "귀가 가렵다"고 호소하는 설교자들입니다. 조엘 오스틴(Joel Osteen)과 베니 힌(Benny Hinn)과 같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와 회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난

이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관제와 같이 부어지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거짓 가르침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배척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밑에 두고 내 생각과 욕망에 맞게 말씀을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과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는가?

내 생각과 욕망이 나에게서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가?"

성경은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읽고 그것이 당신에게 도전적이며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밀어붙인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이 당신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12:1-2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읽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는 너희로 시험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5절을 살펴보고 바울이 디모데와 우리에게 준 지시를 좀 더 읽어봅시다.

5 "너희는 항상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는 "기쁜 소식의 사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은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수행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을 충실히 하는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서 '고난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반대를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셔야 한다면, 그것은 나의 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구원과 영생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을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소식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나쁜 소식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10-12에서 이에 대해 썼습니다.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2 모든 사람이 결길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무가치해졌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고, 한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쁜 소식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쁜 소식을 이해한 후에는 로마서 10:9-10과 같은 구절에서 좋은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됩니다.

“9 만일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 네 마음을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네 믿음을 드러내어 구원을 얻으니라

복음의 좋은 소식은 죽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실 때 상한 마음이 치유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 소망과 새 목적이 주어집니다. 방황하고 길을 잃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는 모두 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과 갈등의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경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Apostle's Creed 및 New City Catechism과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것들은 경전이 아니지만 우리가 경전에서 찾는 진리에 대한 유용한 요약입니다. 이러한 도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할 때 올바른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임종 직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교회로서 믿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좋아요. 저와 One Voice Fellowship의 다른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질문과 하나님의 진리와 씨름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경주를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킵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므로 지금 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당신께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진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추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쏟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